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Global Issue Paper

2015. 1.15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TEL 02-3460-7314 FAX 02 3460 7777

'글로벌 이슈 페이퍼' 정보는 전 세계 124개 무역관에서 오는 실물 경제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현안 이슈가 발생한 해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슈 요약

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14년 하반기 들어 유가가 하락하면서 연초 배럴당 100~110달러이던 국제 유가가 12월에는 배럴당 50달러대를 기록. 이러한 유가하락은 미국의 셰일 가스 생산에 따른 원유 생산량 증가와 EU 경제의 침체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소비 위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

○ 유가 하락 추세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국가 재정에 원유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 산유국들이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유가 하락은 우리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EU 및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수출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전망

○ 우리기업은 유가하락이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계 유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특히 러시아, 베네주엘라, 이란 등과 같이 국가재정에서 원유 수출 비중이 높은 산유국들의 경제동향을 예의 주시 요망

최근 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유가 하락 원인 및 유가 최근 추세

□ 하락 원인

○ **최근 들어 미국이 자국內 셰일 가스(Shale gas)를 본격 생산**하면서 세계 원유 공급량이 급속히 증가

- '10년 일일 약 755만 배럴이던 미국 원유 생산량이 '14년 들어 950~1,120만 배럴까지 증가. 이는 미국의 타이트 오일(tight oil)*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

※ 타이트 오일(tight oil) : 셰일 가스 매장 퇴적암층에서 시추하는 원유로서, 탄소 함유량이 많고 황 함량이 적은 경질유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4년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일일 9,362만 배럴이나 수요량은 9,306만 배럴로 초과 공급 상태

< 최근 세계 원유 수급 동향 >

(단위:mb/d)

구분	'13. 4분기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전망	'15. 1분기전망
수요	92.77	91.60	91.54	93.06	93.55	92.64
공급	91.88	92.04	92.77	93.62	N.A	N.A

※ 자료원 : IEA

- 반면, 당초 우려되었던 이라크, 리비아 등의 정정불안과, 러시아의 감산 조짐 등이 사태가 진정되거나 완화 상황에 접어듬

. 이라크 : IS와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차질은 발생치 않고 있음
. 리비아 : 정부와 반군간 일부 협상 타결되며 원유생산량 증가 추세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방과 러시아간 갈등이 공급차질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미국을 제외한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부진으로 소비 수요 및 산업 생산 위축**

- 미국과 함께 최대 경제블럭인 EU 경기부진 및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원유 수입수요 감소. EU '14년 GDP성장율이 당초 전망치 1.6%에서 1.4%로 하향 조정. EU 최대 경제국 독일도 '14년초 전망했던 1.8% 성장률이 1.0% 이하로 하향 전망

- 중국도 금년('14) 성장률 목표 7.5% 달성이 어려울 전망. 부동산 개발 투자 감소(투자증가율 '13. 19.8%증가 →'14.1~9월 12.5%로 감소)와 소비 심리 둔화 등 요인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7.4% 성장률 기록

< 최근 4년간 중국 경제성장율 >

2011	2012	2013	2014
9.3%	7.7%	7.7%	7.4%

※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청, IMF

□ 유가하락 추세 및 내년도 전망

○ 작년말 배럴당 100~110달러이던 국제 유가는 '14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 11월들어 80달러대를 기록하였으며, 12월 들어서는 약60달러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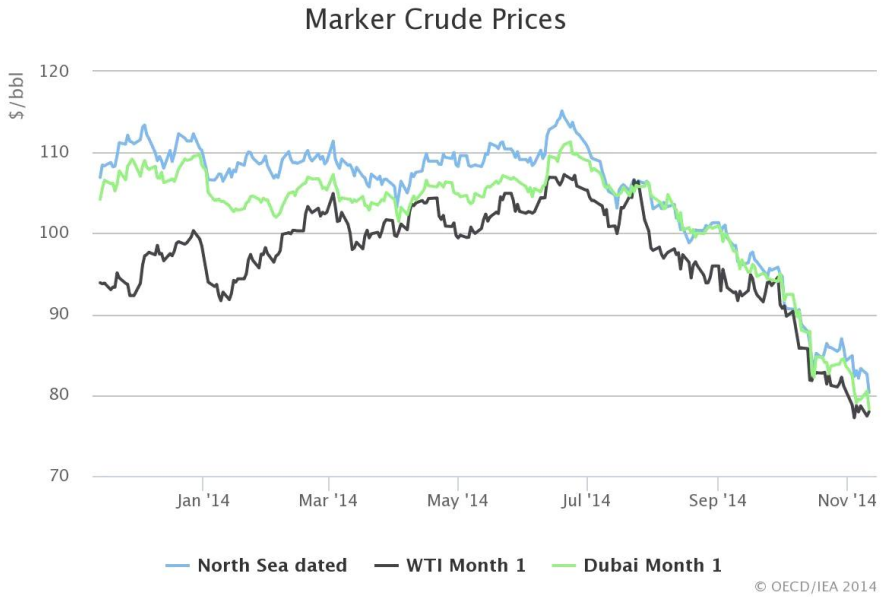
○ 내년도 국제 유가는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서부텍사스유(WTI)가 배럴당 평균 65~75달러, 두바이유는 75~8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국제유가 동향 >

(단위: U$/B)

구 분	'13. 12.3일	'14. 3.3일	6.3일	9.3일	11.3일	12.16일	2015(전망)
DUBAI유	113.10	111.4	108.8	100.79	84.87	59.50	75~80
WTI유	108.28	107.27	105.12	98.97	82.48	55.71	67.50
NS Brent유	96.04	104.92	102.66	95.54	78.78	59.99	72.50

※ 자료원 : IEA 및 Financial Times(12.16)



* 자료원: IEA (2015 전망치:도이체방크, 현대증권)

2. 유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 경제 파급 효과

가. 주요 산유국(러시아/중남미/중동)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 유가하락으로 국가 재정 감소 및 루블화 가치 급락

○ 국가 경제 주요 수입원인 유가 하락으로 외화 수입 감소

- 원유 및 가스 수출이 러시아 전체 수출액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의 약 50%가 원유 수출에 의존.
- 유가 하락에 따른 외화 수입 감소로 미 달러화 대비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여 '14년 1월 33루블대의 환율이 67.78루블(12.18일)로 약 105% 하락

➔ '15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70달러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루블화도 달러화 대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1달러 하락시 러시아 정부 수입 약 14억 달러 감소
※ 러 중앙은행, 루블화 1% 하락시 소비자물가 0.1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중남미 : 베네주엘라, 외화 수입 감소 및 시장환율 폭등

○ (베네주엘라) 원유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약95%를 차지하며 국제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막대

- '14. 10월 외환부족으로 공식 환율이 달러당 6.30볼리바르이나 시장환율은 달러당 99.5볼리바르를 기록. 시장환율은 연초 60~70볼리바르에 비해 42.1~65.8% 상승
- 외환보유고는 198억 달러(10.8일 기준)로 2003년 10월이후 최저 수준이며, 물가상승율은 '14. 1~8월 기간 중 39%를 기록하며 경제상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브라질)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원유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약 6%를 차지하여 비중이 비교적 크지 않음. 그러나 원유외 철광석, 대두, 사탕수수, 커피, 가금류 등 원자재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50%이상을 차지

- 주요 수출품목인 원자재 가격 하락, 세계 경기 부진으로 '13년 무역수지가 2000년 이후 최악인 25억 달러 흑자에 그치고, '14년들어 유가 하락과 원자재 수요 감소세 등으로 1-7월 누적 무역수지가 -9억 달러를 기록

- 브라질 경제연구소(IBRE)는 '14년 GDP 성장률은 전년('13년) 2.5%보다 대폭 낮아진 1.0%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1.0% 이하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중동 : 이란은 유가하락으로 국가 재정 악화

○ (이란) 국가 예산의 약50%를 원유 수출로 충당하고 있어 유가가 재정에 주는 영향 막대. 재정의 손익분기점 기준이 되는 유가는 배럴당 약 140달러로 전망

<주요 산유국 균형 재정위한 유가 수준>

(단위:배럴당 달러)

이란	베네주엘라	러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	리비아	UAE
140	121	110*	119	93	90	70

* 자료원 : Deutsche Bank, 2014년 기준, 러시아는 Financial Times

- 유가하락이 외화수입 감소로 이어져, 11월 현재 정부의 재정적자는 약 150억 달러에 달함(이란 국영신문사 에브테카르)
- 리알화 시장 환율은 '14년 1월 달러당 24,700리알대에서 4월 25,000리알, 12월에는 26,936리알('14.12.6, 이란 중앙은행)을 기록하여 지속 상승. 물가도 '14.4월 국내 휘발유 가격이 75% 인상되는 등 '14년 인플레이션은 22%의 높은 수준 예상됨

○ (사우디) 비석유 부분의 안정적 성장세로 유가하락에 영향을 흡수
- 철도 및 각종 인프라 개발, 국내 소비재에 대한 수요증가, 안정적인 외화보유고(약7,700억 달러) 등으로, 현재까지 유가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분석됨. GDP성장율은 전년('13년 3.8%) 대비 상승한 4.4%로 전망

< 주요 산유국 2014년 환율 변동 추이 >

이란 (리알)		베네주엘라 (볼리바르)		러시아 (루블)		나이지리아 (나이라)		사우디 (리얄)		리비아 (디나르)		UAE (디르함)	
1.1일	12.1일	1.1일	12.1일	1.1일	12.1일	2월	12.15일	1.1일	12.1일	1.1일	12.1일	1.1일	12.1일
24,774	26,870	6.28	6.30	32.86	51.63	158	180	3.75	3.75	1.23	1.30	3.67	3.37

※ 정보원 : x-rates.com (나이지리아는 2월 기준 환율)

나. 주요 경제권에 미치는 영향

□ (EU)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 상승효과 예상되나, 부작용 가능성 존재

○ 경제 전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 전망

- 유가하락으로 중동, 중남미, CIS 등 산유국 신흥국가들의 경제 위축이 수출감소로 옮겨지는 부작용 존재. 그러나 에너지 수입액 감소로 무역수지가 개선되며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아울러 기업 제조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둬 경제 전반에 호재로 작용

.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80달러로 20% 하락할 경우 원유 순수입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성장률이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국제 유가와 GDP (골드만 삭스 최근 보고서)
국제유가가 20% 하락할 경우,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신흥국(중국, 대만, 인도, 싱가폴)의 GDP 성장률이 1.0%P 오른다고 예측. 원유 순수입 선진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의 성장률은 0.7%P 상승 전망. 반면, 골드만삭스는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은 성장률이 1.0%P 떨어질 것으로 예측

- 그러나 저유가 및 산유국들의 오일 머니 감소가 산유국 경기 위축을 가져오고 동 현상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파급되어 EU 경제 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 존재. 즉 저유가 현상이 EU의 낮은 물가상승율을 심화시켜 소비 침체 및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위축되는 디플레이션 현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 재정 개선 및 제조 원가 절감 효과로 저유가 수혜국 전망

○ 원유 수입액이 막대하여 경제 전반에 호재로 작용
- 중국은 원유 수입액이 연간 2,200억 달러('13년)에 달하는 원유 수입 대국으로 유가하락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중 하나
- 경상수지 개선과 국가 재정 개선 효과를 가져 오며, 기업은 제조 원가가 절감되어 경제 전반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 전망

□ (미국) 타이트오일 생산 및 산유국화로 최대 수혜국

○ 저유가 수혜국이나 유가 하락 심화 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 국제 유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액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셰일가스 생산이 미 경제 회복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작용. 그러나 사우디 등 OPEC회원국들의 생산량 증가로 국제 유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시 부정적으로 작용 가능성 존재

. 미국 타이트오일 생산원가는 배럴당 50~80 달러로 추정. 국제에너지기구(IEA) 반 데어 회벤 사무총장, 미 셰일 원유의 98%는 유가가 80달러 선까지 유지될 때 손익 수지를 맞출 수 있으며, 일부 셰일 원유는 60달러대 에서도 차익 실현

가능하다고 밝힘

- 반면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하락 시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전망

3. 유가하락이 우리 기업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가. 전반적 영향

□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견해 상존

○ **(긍정적 요인)** 유가 하락은 비산유국가들에게는 무역수지 개선과 국가재정을 기여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옴

- 이에 따라 각 국의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EU와 아시아국가들 대부분이 비산유국으로 이들 지역의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전망

◈ 국제 유가 배럴당 20달러 하락 시 전 세계 GDP 0.5% 증가 (IMF 세계 경제전망보고서)

○ **(부정적 견해)** 그러나, 최근 유가 하락 현상이 공급 과잉보다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물가 하락과 디플레이션을 심화시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 상존

- 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산유국의 오일 머니 수입 감소가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막히는 유동성 감소로 나타날 우려 존재

◈ 경기침체 및 원유 소비 감소 → 유가 하락 → 오일 머니 수입 감소 → 해외 유동성 자금 감소 → 글로벌 주식시장 침체 → 주가하락 → 투자 위축 → 경기 침체 심화

※ 산유국 오일 머니는 국부 펀드 등의 형태로 해외 부동산, 주식, 채권, M&A 등 외국인 투자 등 방법으로 해외 자금시장에 연간 약 3,500억 달러(2006년 이후 기준) 유입 (IMF)

- 국가 재정에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들은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환율 급등으로 경제 위기 봉착 가능. 아울러 내수 시장

위축으로 수입 수요가 급격히 감소될 전망

< 경제 악화 및 수입시장 축소 예상되는 산유국 >

◈ **베네주엘라** : 원유 수출이 전체 수출의 95%를 차지. 최근 볼리바르화 시장환율 급등. S&P사,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 낮춘 CCC+로 조정. 향후 2년내 국채지불 불능으로 디폴트 가능성 있음을 경고

◈ **이란** : 유가 배럴당 130~140달러시 재정균형 달성. 국가 재정의 50~60%를 원유 수출로 충당하고 있어 현재 유가(64달러 내외, 12.9)로는 정상적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

◈ **러시아** : 원유.가스 수출이 국가재정의 50~60%, 총 수출의 65~70% 차지. 루블화 환율 연초 33루블에서 최근 54~55루블대로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및 유가 하락으로 경기 악화

나. 지역별 영향

1 EU 시장

○ **'유가 하락의 수혜 시장'으로 EU시장 수출여건 개선 전망**

- 독일, 프랑스, 이태리를 포함, 순수 원유 수입국이 대부분으로 유가하락이 경기회복 및 GDP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원유 순수입 선진국의 경우 국제유가 20% 하락 시 경제성장율이 약 0.7%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골드만삭스)

- **EU내 일부 국가는 저물가 기조에 따른 디플레이션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이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 그러나 장기적으로 유가 하락은 경제성장과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 대EU 수출여건 호전될 전망

2 중국

○ **'유가 하락의 수혜 시장'이나 내수 시장에는 큰 변동 없어**

- 중국은 원유 수입액이 연간 2,200억 달러로 미국과 함께 최대 수입국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최대 수혜 국가 중 하나임
- 그러나 원유 수입액이 중국 전체 GDP 대비 비중 약 2~3%로 높지 않아 유가하락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중국 내부적으로도 내년('15년) 경제성장율을 당초 예상대로 '14년

(7.4%) 대비 하락한 7.0%로 확정(12.7일 중앙정치국회의 결정(신화통신))

3 미국

○ **사우디와 함께 최대 산유국으로 전환, 뚜렷한 경기 회복세 보여**

- 미국은 현재 일일 생산량이 약900만 배럴까지 올라가 최대 생산국인 사우디 생산량 약 950만 배럴에 근접
- 과거 원유 최대 수입국이던 미국이 원유 수출국으로 전환되어 국가 재정에 플러스 효과 거둠. 또한 기업의 생산원가가 하락하여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 기업들이 본국으로 U턴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국가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제는 '14. 2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세(2Q 2.5% 성장)를 보이며 인플레이션도 목표치인 2%에 근접. 경기 활성화로 가계소비 증가 및 기업 투자 개선 추세를 보이며 2015년 전망도 경제성장률이 '14년(2.2%)에서 '15년 3.1%로 상승하며 우리 기업 대미 수출 수요 증가 예상

<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추이 >

	'13년(1~10월)	'14년(1~10월)	증가율
수출액	516.5억 달러	577.7억 달러	11.9%

4 산유국

○ **외화 수입 감소로 재정 악화 및 내수 경기 침체 전망**

- **이란, 이라크, 베네주엘라** 등 원유 수출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유가하락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수입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로 원활한 외화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국가재정이 어려워진 상황

- 그러나 사우디, UAE 등 탈석유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중동

국가들은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산유국 원유 수출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비율 >

이란	이라크	베네주엘라	러시아*	나이지리아
50~60%	90%	60~70%	50~60%	70~80%

※ 러시아 : 원유 및 가스를 포함한 비율
※ 자료원 : 매일경제(12.3일)

5 신흥국

○ **비산유국 주요 신흥국들은 에너지 비용 감소로 플러스 효과 예상**

-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신흥국은 비산유국으로 국제 유가 하락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전망으로 나타남

. 인도는 세계 원유 소비량('13년)의 4.2%를 차지하며 신흥국가중 원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정부 '12~'13 예산지출 총 14조 3천억 루피 중 석유보조금이 9,688억 루피로 보조금 지출이 많아 유가 하락이 재정에 일부 기여할 전망

. 인도네시아도 세계 원유 소비량의 1.8%('13년)를 소비하고 있는 신흥국 중 원유 소비 대국이며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유가 하락이 국가 재정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전망

. 남아공은 일일소비량 57만 배럴로 세계 원유 소비량의 0.7%를 소비하고 있으며 유가 하락이 경제 전반에 호재로 작용 전망

< 주요 신흥국 원유 소비량 및 전 세계 소비 대비 비중) >

(단위:thousand barrels daily,%, '13년 기준)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	
소비량	비중	소비량	비중	소비량	비중	소비량	비중
3,727	4.2	1,623	1.8	570	0.7	2,973	3.2

※ 자료원 : IEA

- **브라질**은 석유를 일부 생산하고 있으나,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16.9%가 원유, 석유 및 가스 수입액임. 따라서 유가 하락에 따라 무역수지가 호전되고 국가 재정이 개선되는 효과 거둘 전망

나. 우리기업에 주는 시사점

□ 산유국으로 경제 부진 예상 국가는 경제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 수입이 국가 재정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러시아, 베네주엘라, 나이지리아 등은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요망됨
- 원유 수입 감소 및 외화 조달의 어려움으로 해당국 환율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무역거래 필요. KOTRA 및 대사관을 통한 해외시장 동향 입수, K-Sure(구 무역보험공사)의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현지국 환율 동향 또는 바이어 신용도를 사전 확인하며 무역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

□ EU, 중국, 인도 등 유가하락에 따른 수혜국가 시장 진출 노력해야

○ 유가 하락에 따른 내수 증가를 우리 수출로 연결하는 전략 필요

-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주요국들을 포함한 폴란드, 헝가리 등 EU 주요국들은 원유 순수입국들로서 저유가에 따른 혜택을 받는 지역들임. 아울러, 중국, 인도 등도 원유 수입액이 많은 나라들로 EU와 함께 저유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분석
  .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에너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출하고 있어 유가 상승시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나, 최근의 유가 하락으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우리 기업은 이와 같은 저유가 '수혜시장'을 대상으로 유가 하락에 따른 내수 활성화 부분을 수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참고) 2015년 주요 지역별 경제성장율 전망 >

유로존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남아공	
'14	'15	'14	'15	'14	'15	'14	'15	'14	'15	'14	'15
1.10	1.87	7.54	7.28	2.77	2.95	1.33	2.32	5.42	6.35	2.34	2.66

※ 자료원 : IMF

□ 문의처 : 신흥시장팀 김 희중 전략시장 PM (T:02-3460-7314, hjkim24@kotra.or.kr) <끝>